

위기와 청년, 다시 읽기

: 소멸-재생이라는 뒤엎힘 속 삶의 역동에 대하여

강 석 민*

목 차

1. 민속적인 것의 사회적 재현과 국면적 성격
2. 권력에서 위기로, 편재성의 이전과 주체의 문제
3. 위기와 청년, 담론적 상호성 혹은 역사적 주체성
4. 소멸 위기 속 '재생'이라는 뒤엎힘과 그 서사
5. 조건화/블록화된 역량 혹은 다양한 삶 양식의 역동

국문초록 | 청년은 단순히 특정 연령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한국사회에서 청년의 존재성은 위기와 실패를 이루며 등장하거나 증명되어온 역사적 주체들이라는 데에 그 특이성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담론적으로 구성되는 당대적 위기의 층위와 성격이 청년의 호명 속에서 다소 무화되거나 소거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생명정치적 훈육과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그 소수적 역량 자체를 블록화/가시화한다는 것이다. 다만, 그러한 문제를 존재 그 자체가 아니라 생성과 연관 지어 파악할 때, 오늘날 권력의 편재성보다 위기의 편재성이 더욱 명확해진다는 점, 그리고 그 속의 청년은 그러한 위기와 공존한다는 역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 글은 그동안 여러 지역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공동체문화를 실험하며 대안을

* 姜錫珮 국립경국대학교 대학원 민속학과 BK21교육연구팀 학술연구대우교수
seokminism@naver.com

투고일: 2025. 11. 21. 심사완료일: 2025. 12. 25. 게재확정일: 2026. 1. 12.
DOI URL: <http://dx.doi.org/10.17792/kcs.2025.49..183>

상상하거나 체제가 요구하는 로컬적인 것의 수행을 부분적으로 감당해내고 있는 청년들의 발화를 주요 경료이자 분석 대상으로 삼아, 위기 담론과의 연관 속에서 조건 지어지고 있는 청년의 처지, 즉 ‘위기의 청년’ 혹은 ‘위기와 청년’을 둘러싼 삶의 양태와 그 역동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핵심어 | 민속, 위기, 청년, 지역, 로컬, 재생

1. 민속적인 것의 사회적 재현과 국면적 성격

최근 공동체문화 연구와 실천 현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 중 주목되는 것은, 민속이 단순한 재현이나 모사를 초래하게 되는 형태적 행동이 아니라, 생성 또는 되기의 방식으로 확장 중에 있는 민속적 행동으로 사유되고 또 실천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근대가 시작되면서 발견되고 재구된 민속은 고유하게 식별될 수 있는 실체가 아닌, 최소한 역사적인 차원에서 끊임없이 변환·생성되어온 존재, 유사성의 계열과 이질성의 계열이 교차·중첩하거나 때론 각축해온 역동적인 흐름으로 재정의되고 있다.¹⁾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공동체 운동과 마을만들기 등의 현상과 그에 따라 정립되고 있는 공동체문화라는 문제계는 그와 같은 민속적 사유와 실천이 만나 이룬 통합적인 지대이자 민속학적 연구 지형의 전환이라는 지향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의거하면, 민속은 역사적으로 단일한 기원을 지니거나 단선적인 계열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없다. 다시 말해, 과거에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선형적이고 인과적인 혹은 ‘동질적이고 텅

1) 맞시모 데 안젤리스, 권범철 옮김, 『역사의 시작』, 갈무리, 2019, 19~25쪽; 이영배, 「공동체문화 연구의 민속적 패러다임 정립을 위한 기획」, 『인문학연구』 40,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9, 272~273쪽; 「공동체문화 실천의 역사적 원천과 그 재생의 특이성」, 『한국학연구』 70,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9, 172쪽.

빈' 시간성의 모습보다는, 다양한 시간의 결들이 자유롭게 떠다니고 중첩되는, 그래서 좀 더 중층적이면서 횡단적이지만 동시대적 순환과 반복 속에 통합됨으로써 다중적인 시공과 맥락들이 내속하는 시간성의 모습²⁾을 보이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민속은 초기 조건이 그러했던 것처럼, 근대와의 연관 혹은 근대성을 오히려 그 안에 중요한 계기로 포함하면서 존속하고 있는 일종의 장적 특성을 지닌다고 이해될 수 있다. 그에 따라 민속을 주어로 삼을 때, 그것은 지속과 전승, 단절과 변화로 표현되기보다는 흐름과 재현, 변환과 생성 등과 같은 어휘들로 표현되는 것이 더욱 타당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위기가 도래하거나 그것이 담론적으로 부상함에 따라 공동체와 관련된 실천들 속에서 가능한 대안적 실험들이 상상되고 제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대안은 그것이 극복하고자 하는 위기의 원인과 결과에 관계없이 지역적으로 발견되거나 또 해소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를테면 기후위기는 그것을 체감하도록 하는 국지적 현상과 담론의 결합 속에서 위기로 인식되고 있고, 그에 대응하는 실천 혹은 대안적 상상 역시 국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공동체문화 실천은 담론적인 차원에서 보편성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 토착적인 기반들에서 연원한 다양성과 역동성을 그 안에 내재하고 있으면서도, 지식 담론과의 관련 속에서 융합적이고 다중적인 실천 양식의 고안 필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민속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양상에 천착할 때 좀더 문제적으로 인식되는 부분은, 운동의 지속이 불투명해지고 실천 역량이 소진됨에 따라 이와 같은 실험들이 공공 영역으로 흡수되는 경향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2) 발터 벤야민, 최성만 옮김,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 폭력비판을 위하여 · 초현실주의 외』, 길, 2008, 327~350쪽; 강석민, 『공동체문화라는 문제계의 담론적 의의』, 『공동체문화와 민속 연구』 6, 국립경국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23, 14~15쪽.

두레와 품앗이, 대동놀이와 의례 등 역사적으로 존속해오던 마을사회의 운영과 관련된 공동체적 역량이 저항과 변혁의 강조 속에서 민중민속으로 변환되었던 것이 하나의 국면³⁾이라면, 오늘날 사회적인 것의 부상과 재구성 속에서 그와 같은 마을의 문법이 제도와 공공 영역의 확장적 투자 속에서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국면⁴⁾을 지나고 있는 것이다. 손상된 복지 영역 내지는 재생산 영역의 회복이 ‘마을’의 정책적 재구의 맥락에서 강화되고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소진적 위기를 마주한 공동체 운동과 실천 영역이 공공 영역에 더욱 빠르게 흡수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관심있게 포착한 것은, 공동체문화 현상의 이와 같은 변화 과정에서 ‘청년’이 그 매개적인 개념 혹은 주체로 위치지어지고 있다는 점이다.⁵⁾ 즉 지역의 위기와 운동의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개념 혹은 주체로서 담론화되고 또 배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찍이 지적되었던 것처럼, ‘청년’은 당대

-
- 3) 임재해, 「민속문화의 공유 가치와 민중의 문화주권」, 『한국민속학』 40, 한국민속학회, 2004, 109~178쪽; 허용호, 「19세기 무속에 대한 ‘반성적 연행’의 성행과 그 민중문화적 의미」, 『한국무속학』 19, 한국무속학회, 2009, 131~164쪽; 「‘그들’이 만들려했던 공동체」, 『일본학』 29,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09, 123~148쪽 등.
- 4) 박주형, 「도구화되는 ‘공동체」, 『공간과사회』 43, 한국공간환경학회, 2013, 5~43쪽; 김주환, 「사회적 기업 성공담론의 구조와 신자유주의 헤게모니」, 『문화와사회』 16, 한국문화사회학회, 2014, 223~274쪽; 「한국에서 사회적기업과 신자유주의 통치」, 『경제와사회』 110, 비판사회학회, 2016, 164~200쪽; 조문영·이승철, 「‘사회’의 위기와 ‘사회적인 것’의 범람」, 『경제와사회』 113, 비판사회학회, 2017, 100~146쪽; 「한국 ‘사회혁신’의 지형도」, 『경제와사회』 120, 비판사회학회, 2018, 268~312쪽; 김은지, 「‘사회혁신’, 변화를 ‘제작’하는 사회운동의 등장」, 『문화와사회』 26(2), 한국문화사회학회, 2018, 379~429쪽 등.
- 5) 박해궁,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역할」, 『사회적기업연구』 4(2), 사회적기업연구원, 2011, 137~147쪽; 조문영, 「청년자본의 유통과 밀레니얼 세대-하기」, 『한국문화인류학』 51(3), 한국문화인류학회, 2018, 309~364쪽; 류연미, 「지속가능한 삶으로서의 활동」,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권수빈, 「지역과 청년, 그리고 탈-활동」, 『민주주의와 인권』 22(3),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22, 79~140쪽 등.

의 다양한 욕망들이 마주치는 장으로 규정될 수 있다면, 오늘날 공동체 실천 현장에서 자주 호명되고 쓰임새를 가진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청년’은 원인과 결과를 엄격하게 구분지어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적이고 다층적으로 체감되고 있는 위기들을 해소하고자 하는 열망을 표상한다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의 주요한 관심은 위기와 청년의 연관 속에서 청년이 어떻게 위치지어지고 호명되는지를 문제적으로 생각하고, 이를 ‘위기’와 ‘청년’의 연관 속에서 종합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명확하게 규정되기 어려운 ‘청년’은 위기의 곁에 늘 함께해 왔다는 점이 이 글의 관심이다. 즉 ‘청년’은 위기를 해소하고자 하는 희망의 이름이기도 했지만 그 희망을 말하는 이들 자신의 위기를 역으로 증명하는 이름이기도 했다. 때로 ‘청년’은 그 자신이 위기의 이름이기도 했다. 이처럼 ‘위기’와 ‘청년’이 서로 상호 관계를 맺으며 존속해온 역사적 장면들을 선행 논의에 기초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그런 다음, 이 글은 당초 ‘청년’에 대한 관심의 계기로 거슬러 올라가 ‘청년’이라는 이름의 가장자리 혹은 그 바깥에서 분투하고 있는 이들의 발화를 실마리로 하여 이들의 인식 지향과 주체적 흐름의 문화적 의미를 도출하고자 한다. 주목되는 것은, 비슷한 연령대나 위기 국면의 해소 측면에서의 공통점 이외에 다른 공통점이 없다는 점을 밝힌 다른 세대 연구들이 도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발화자들 역시 이렇다할 공통점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지역의 소멸 위기 담론의 부상과 관련하여 ‘재생’의 흐름 속에서 이들의 활동 내지는 살림이 두드러지게 주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생명정치적 사유에서도 ‘지역의 재생’이라는 언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개별 인구에 대한 통치를 넘어서 지역이라는 회집체에 단일한 생명성을 부여하여 재생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흐름을 통치성로 단정지을지 아니면 다양성과 역동성을 더욱 주목할지와 같은 남은 문제들이 있다. 마지막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천착을 통해 다음의 과제를 남겨두고자 한다.

2. 권력에서 위기로, 편재성의 이전과 주체의 문제

민속이라는 범주 혹은 영역에서 청년을 문제화하는 타당성과 그 새로움을 민속과 그 주체에 대한 선행 논의를 진입 경로로 삼아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확인되는 민속지식 생산의 흐름과 전환의 기점들은 언제나 그것이 놓인 지식사회적 토양과 긴밀히 연동되어 있다고 할 만하다. 민속학이 문제화하거나 또 그 주체성을 어떤 식으로 규정해왔는가 하는 점은 동시대 사회가 요구하는 인식의 지평과 분리될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속학은 당대의 사회적 조건에 부응하는 지식의 성격을 띠며 재구성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문제적인 것은, 그간 민속의 주체가 상당 부분 민속 전승의 주체와 동일시되어 왔다는 점이다. 전승을 수행하는 이들이 곧 민속의 주체라는 전제는, 민속 현상에서 생성되는 서로 다른 관점과 위치,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지식장의 다층성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므로 민속지식이 언제나 특정한 사회적 요구와 문제의식 속에서 생산되어 왔음을 고려하는 가운데, 이로부터 민속지식 생산의 전환 가능성과 그 향방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1980년대 이후에 한정해볼 때, 민속학에서 전승주체를 규정하는 핵심 개념은 단연 민중이라고 할 수 있다. 민중은 “양반문화 또는 엘리트 문화에 맞서 자기 문화를 주체적으로 창조하는 피지배계급”⁶⁾으로 규정되어 왔으며, 그리하여 문자보다는 구술을 중심으로 전통문화 내지는 민족문화를 전승하는 집단적 주체로 상정되어 왔다. 이 정의는 민속을 낮은 계급의 문화로 위치시키는 동시에, 전승 주체의 문제를 계급 개념으로서 민중과 결부시키는 인식틀을 정초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속은 민족 단위의 문화임과 동시에 농민과 서민의 삶에 뿌리를 두고 구술성과 집단성, 그리고 익명성을 그 특징으로 하는 문화로 파악되어 왔다. 특히 민중 개념은 역사적 발전

6) 임제혜, 『민속문화론』, 문학과지성사, 1986, 148쪽.

단계 속에서 백성에서 서민으로, 또 민중으로 전화되어 왔고,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주체로서 그 위상을 획득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민속문화라는 것은 사회과학적 의미의 민중 및 민중문화와는 구분되었고, 오히려 민속은 공동작·구전성·전통성·생산과 수용의 일치성이라는 준거를 통해 상대적으로 고유한 차원에서 영역화된 문화들로 설정되어 왔다.⁷⁾

이후에도 민속문화의 주체로서 민중은 본질적 소유 주체로 상징되는 위협을 의식적으로 피하는 한편, 민속을 정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요소로서 다시금 위치시키는 시도로 이어진다. 이를테면, 민중은 민속문화의 주인이라기보다 민속이 작동하는 생활 내지는 의식의 층위를 포착하기 위한 개념이자 매개로 정위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이른바 ‘생활로서의 민중’과 ‘의식으로서의 민중’이 구분되는 한편, 민속 전승과 관련된 주체가 전승주체자와 전승담당자, 전승자, 전수자 등으로 세분화되기도 했다. 의식적인 차원에서, 민속학에서 민중은 선형적이거나 단일한 역사적 주체로 설정되기보다는, 민속의 현장과 그 실상을 종합적이고 총체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지역과 마을공동체의 문화는 국가 권력이나 지배 질서의 바깥에서, 혹은 그와의 연관 속에서 주체적으로 형성된 문화 창조력과 문화주권의 차원에서 재해석되기도 했다.⁸⁾

그런 한편, 민속문화의 갈래별 연구를 통해 전승 주체의 내적 분화와 그 자신의 변동 과정이 본격적인 차원에서 문제화되기도 했다. 특히 무속을 비롯한 의례와 신앙의 연구 영역에서 가계 전승과 그로부터 설정되는 전승의 계보가 중요한 분석틀로서 부각된 바 있으며, 이는 지배 권력이 이야기하는

7) 임재해, 「민속의 전승주체는 누구인가」, 『민속연구』 1, 국립경국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1, 47~80쪽.

8) 임재해, 「민속문화의 전승주체와 민중의 문화창조력」, 『실천민속학연구』 6, 실천민속학회, 2004, 9~58쪽; 「『지역화』의 문화적 전망과 민속문화의 문화주권 인식」, 『한국학논집』 33,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06, 335~392쪽; 「민속학 연구대상으로서 민속과 민중의 실천적 인식」, 『실천민속학연구』 31, 실천민속학회, 2018, 9~70쪽.

사회적 천시와 제도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민속의 전승이 어떤 식으로 지속되거나 변형되어 왔는지를 포괄하고 있다. 학습 과정과 전승 방법을 현지조사와 증언을 통해 자료화하는 한편, 전승 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체 역시 대체되거나 변화해 간다는 점이 강조되는데, 이는 전승 주체의 문제가 사회적 조건과 제도, 그리고 환경에 따라 재구성되거나 재위치된다는 점을 인식케 하는 계기가 된다.⁹⁾ 이와 함께 제기될 수 있는 것은, 전승집단의 계급적·계층적 복합성 문제가 그 역사성의 검토와 결부되어 제기됨으로써 민중이라는 단일 범주로 설명되지 않는 민속 전승 현실의 일면이 가시화되기도 했다는 점이다.¹⁰⁾

배경적으로 볼 때, 1970년대 이래의 민족문화운동은 민속과 민중을 결합시키는 인식들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민속은 사회적 진보와 민족 자존을 지향하는 문화운동의 맥락에서 호출되었고, ‘우리 것’에 대한 실천적 지향¹¹⁾의 핵심 자원으로 기능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을 대상화한 연구들은 민속지식이 그 자체로 민중이라는 주체성을 구성하고 호명하는 정치적 개념으로 활용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운동권 지식인의 민요와 민중 인식, 그리고 권력과 저항의 구도 속에서 재구성되는 민속의 의미¹²⁾은, 민속지식 생산과 활용 문제가 당대의 정치적·사회적

9) 홍태한, 「무가의 전승 주체」, 『한국민속학』 35, 한국민속학회, 2002, 253~375쪽; 강정원, 「동계 전승주체의 변화」, 『한국민속학』 36, 한국민속학회, 2002, 1~25쪽; 이경엽, 「무속의 전승 주체」, 『한국민속학』 36, 한국민속학회, 2002, 181~209쪽.
 10) 한양명, 「한국 민속놀이 연구의 시각과 전망」, 『비교민속학』 38, 비교민속학회, 2009, 13~33쪽; 이훈상, 「조선후기 읍치 사회의 구조와 제의」, 『역사학보』 147, 역사학회, 1995, 47~94쪽; 이기태, 『읍치 성향계 주체집단의 변화와 제의 전통의 창출』, 민속원, 1997; 김태우, 「조선 후기~일제강점기 도시지역 민속의 주도 집단, ‘민’에 대한 개념의 확장」, 『한국민속학』 57, 한국민속학회, 2013, 177~204쪽.
 11) 주강현, 「한국민속학의 범주와 영역의 혼재」, 『역사민속학』 15, 한국역사민속학회, 2002, 311쪽.
 12) 이상현, 「운동권 지식인의 민요 인식과 민중 인식」, 『실천민속학연구』 24, 실천민속학회, 2014, 5~37쪽; 「권력과 저항 사이에서」, 『한국민속학』 69, 한국민속학회, 2019, 7~36쪽.

요구와 깊이 얽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른바 현대민속 연구의 중요한 전환점은 민속의 담당층을 도시민과 도시적 생활양식으로 확장한 데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종전의 인식들이 농촌 공동체 혹은 전통적인 전승 집단에 머물렀다고 한다면, 이 흐름에서는 오늘의 삶을 규정하는 교통과 통신의 환경, 산업화와 상품화, 그리고 문화의 표준화와 균일화가 민속문화의 형성과 전승 조건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근대 이후의 민속은, 이를테면 도시민과 서민의 일상적 생활문화를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문화들로 파악되기도 했다.¹³⁾ 이러한 방법론적 시도는 민속학의 연구 영역 자체를 확장하는 방향을 견지하는 가운데, 도시민속학이라는 범주를 정립하는 작업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도시민속학은 농촌이나 근대 이전에 귀속되는 민속 인식을 의식적으로 비추면서도, 도시라는 조건 속에서도 민중의 문화적 주체성이 어떻게 형성되거나 유지되고 또 변형되는가를 탐구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그리하여 도시는 전통적인 민속문화의 요소가 농촌과 공존하며 지속되는 공간, 도시에서 독자적으로 생성된 민속문화가 출현하는 공간, 현대 소비문화와 결합된 대중문화가 민속의 한 형식으로 전환되는 공간으로 규정되기도 했다. 그리하여 도시민속은 새로운 조건 속에서 재배치된 전통성과 주체성의 문제를 이해하는 가능성을 남기기도 했다.¹⁴⁾

도시민속학 연구는 그 대상의 확장을 도모하는 만큼 방법론적인 다각화 역시 동반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광범위하고도 이질적인 영역들을 포괄하는 도시라는 공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연구 대상과 공간, 집단을 한정해야만 그 연구의 총체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뒤따르기도 했다.¹⁵⁾

13) 이상일, 「전통과 새 민속의 형성」, 『충격과 창조』, 창문사, 1975; 강등학, 「21세기 민속학의 과제와 전망」, 『한국민속학』 40, 한국민속학회, 2004, 25~40쪽.

14) 임재해, 「민속학의 새 영역과 방법으로서 도시민속학의 재인식」, 『민속연구』 6, 국립경국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6, 23~55쪽; 「도시 속의 민속문화 전승양상과 도시민속학의 새 지평」, 『실천민속학연구』 9, 실천민속학회, 2007, 5~50쪽.

이들테면 특정 도시마을이나 지역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나 개인의 생애사와 결합된 민속조사, 그리고 인적·공간적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한 민속지 작성의 필요성이 강조되기도 했다. 도시민속 연구의 또다른 축은 도시화와 산업화가 추동하는 주체성의 과도기적 변화에 대한 주목이라 할 수 있다.¹⁶⁾ 이는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사람들, 혹은 도시 내부에서 새롭게 형성된 집단들이 새로운 도시의 민중으로서 민속문화를 재구성하고 있다는 인식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리하여 도시 공간은 새로운 민속문화가 생성되는 공간이자 전통문화 역시 전과는 다른 형태로 전승되는 공간으로 재규정되기도 했다.¹⁷⁾ 특히 개항지나 도시마을 등에서 발견되는 식민성과 타자화의 조건 속에서 주민들이 보여주는 대응 내지는 그 주체성이 도시민속이라는 범주를 통해 분석되고 의미화되기도 했다.¹⁸⁾

이와 같은 전승 주체의 변화와 대체 문제는 점차 공공민속학의 영역으로 수렴되기도 했다. 공공민속학은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민속문화가 의식적으로 객체화되거나 재현 또는 변용되는 과정을 문제 삼으며, 그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경향을 보인다. 이 지점에서 민속의 주체는 반드시 전승 그 자체를 담보하는 것으로 상정되지 않으면서도, 연구자와 기획자, 제도와 행정, 전문가 집단과 지역 주민, 그리고 향유자와 소비자까지 포함함으로써 다층적으로 구성된다는 점이 전면적인 차원에서 제기된다.¹⁹⁾ 해당 문제의식

-
- 15) 정형호, 「개인생애사를 통한 도시민속학의 접근 방법의 모색」, 『실천민속학연구』 9, 실천민속학회, 2007, 51~84쪽.
 - 16) 최원오, 「도시민속지 만들기와 도시민속학의 가능성」, 『민속학연구』 25, 국립민속박물관, 2009, 5~30쪽.
 - 17) 박환영, 「한국 도시민속학의 연구동향」, 『민속학연구』 23, 국립민속박물관, 2008, 209~224쪽; 「도시민속 연구의 방법과 영역」, 『한국민속학』 54, 한국민속학회, 2011, 155~189쪽.
 - 18) 김정하, 「개항지 도시민속의 식민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동북아문화연구』 37, 동북아문화학회, 2013, 147~167쪽; 「도시마을민속의 타자성과 주체성」, 『민속연구』 36, 국립경국대학교 민속학연구소, 9~31쪽.

은 문화재화와 탈맥락화 및 재맥락화, 현대적 재구성 등의 과정을 다루며 그 과정 자체를 민속학의 분석 대상으로 수렴시키면서, 무형문화재, 놀이민속, 마을민속, 농악, 민요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전승주체의 다변화와 그 현실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보고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다주체적 개입에 따라 기획되고 선택되며 재배치되는 민속문화에 친착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²⁰⁾

이러한 경향을 통해 볼 때, 민속의 주체는 권력에 대립하며 변혁성을 담지한 주체로 규정되는 것에서 점차 권력의 배치들을 수렴하는 가운데 자신을 구성해가는 주체로 변주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그간의 경향은 민속의 전경화에 치중하는 한편, 민속의 재현과 변환을 추동해온 사회문화적 구조와 맥락은 상대적으로 후경화하는 문제가 누적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연구 대상을 주체의 문제로 설정할 때에도 그 주체는 주로 권력과 상관적인 흐름 속에서 포착되는 경향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는 근대 이후 사회적 지식 생산 전반이 권력과의 관계 설정을 중심 축으로 삼아온 인식들과 맞닿아 있다고 할 만하다. 민속학은 사회과학적이고 비판적인 지식 생산의 일반적 경로를 공유하는 한편, 권력에 의해 억압되거나 관리되는 문화로서

-
- 19) 남근우, 「도시민속학에서 포클로리즘 연구로」, 『한국민속학』 47, 한국민속학회, 2008, 29~69쪽; 「공공민속학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민속학』 71, 한국민속학회, 2020, 77~118쪽.
- 20) 이경엽, 「무형문화재와 민속 전승의 현실」, 『한국민속학』 40, 한국민속학회, 2004, 293~332쪽; 한양명, 「놀이민속의 탈맥락화와 재맥락화」, 『한국민속학』 49, 한국민속학회, 2009, 85~119쪽; 배영동, 「전통적 마을민속의 공공문화 자원화 과정」, 『비교민속학』 58, 비교민속학회, 2015, 97~136쪽; 「산업화에 따른 마을공동체 민속의 변화와 탈맥락화」, 『비교민속학』 62, 비교민속학회, 2017, 159~189쪽; 유목화, 「낙안읍성 대보름 민속의 현대적 재구성」, 『실천민속학연구』 29, 실천민속학회, 2017, 275~305쪽; 송기태, 「농악 전승집단의 새로운 생태계 구축」, 『남도민속연구』 39, 남도민속학회, 2019, 201~234쪽; 이옥희, 「전승주체에 따른 상여소리의 전승맥락과 지속가능성」, 『한국민요학』 58, 한국민요학회, 2020, 139~171쪽; 이진교, 「하회 선유줄불놀이의 재현사와 전승 주체의 다변화」, 『실천민속학연구』 44, 실천민속학회, 2024, 229~269쪽.

주로 이해되어온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문제는 민속지식이 그 자신의 현재성을 담보할 때, 지금 이 시점에서 민속과 상관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규정함으로써 색다른 질문을 구성하는 일, 즉 새로운 문제들을 정초하는 일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제기되는 비판은, 기존에 선행된 민속의 역사화 전략이 가지는 한계로 수렴되기도 한다. 역사적인 차원에서 민속을 이해하고 그리하여 근대화 과정에서 그 자신의 변형을 추적하는 데에는 의의가 있지만, 동시에 민속이 자본주의 혹은 근대성과 조우해온 과정과 변형의 궤적을 구체적으로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른바 불연속성이 강조되는데, 민속을 ‘분산의 공간’으로 사유하고 담론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 하나의 가능성으로 감정구조의 문제가 제시되기도 했다. 특히 한국 근대화의 압축적 경험에서 비롯된 한국사회의 세대간 감정구조는 다양한 체험의 스펙트럼이 중첩되는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데에 그 특이성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그럼으로써 민속사회와 근대적 자장이 어떤 식으로 관계 맺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상정되기도 했다.²¹⁾

그와의 연관 속에서 지식의 새로운 주체로서 출몰하는 다중 또는 새로운 사회의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는 소수자 등과의 다각적인 연대의 발현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를테면 현대 한국사회의 조건 속에서 민속지식의 잠재적 능력이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마을행동이 주목되는 한편, 촛불행동과 같은 미디어-다중의 방식으로 현시되는 사건적 존재에 대한 천착을 통해 위기 국면에서 작동하는 집합적 응답 능력으로서 민속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시도되기도 했다.²²⁾ 이와 같은 다중의 민속은 현대 사회에

21) 이영배, 「민속연구에서 문화이론의 문제설정」, 『비교민속학』 47, 비교민속학회, 2012, 11~48쪽.

22) 이영배, 「붕괴의 시대, 연대의 전망」, 『코기토』 77,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5, 252~286쪽; 「마을행동, 사회적 연대의 민속적 배치와 생성」, 『인문학연구』 35,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7, 112~152쪽; 「사회적 연대의 소스 코드로서 민속의

서 민속의 대안적 성격과 문제들을 새로운 방향으로 개방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이를테면 인류세와 지방소멸, 사회적·경제적 위기의 중첩이라는 조건 속에서 민속학의 응답은 어떻게 이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구성한다. 특히 민속적·농적인 삶의 공동성은 전혀 없는 위기에 대응하는 가치실천 양식으로 주목되고, 그리하여 민속은 권력과의 대항 관계에서 의미를 획득하는 변혁적·저항적·구성적 실천으로부터, 위기의 한가운데 혹은 그 틈에서 새로운 삶의 형식과 관계성을 발명해가는 수행적·응답적·생성적 실천으로 전환될 만한 가능성을 갖게 된다.²³⁾

이 글은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이 기초하고 있는 문제의식의 흐름 위에서 위기와 청년, 소멸과 재생, 존재 생성과 정치 내지는 그 삶의 양태와 역동 문제를 하나의 사유틀로 엮어내고자 한다. 이는 민속지식 생산의 주요 층위가 이동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이동의 방향이 현재의 사회적 조건과 긴밀하게 부합하다고 판단할 때에 더욱 그러하다. 요컨대, 민속지식과 상관적인 영역의 중심축이 더 이상 '편재된 권력'²⁴⁾에 머물지 않고, 오히려 사회 전반에 걸쳐 다층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편재된 위기'로 이전(trans) 또는 중첩되고 있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오늘의 민속은 권력에 대한 저항이나 협상이라는 기존의 분석틀이 제한적임을 전제할 수 있고, 오히려 사회 전반에 편재된 다층적 위기에 대한 대응이자 그에 직접적으로 상관되는 실천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규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민속이라는 것을 특정 권력 장치와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획득하는 문화 형식에서, 위기

변환과 생성', 『한국민속학』 66, 한국민속학회, 2017, 7~32쪽.

23) 이영배, 「공동체문화 실천의 동인과 대안의 전망」, 『인문학연구』 42,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0, 483~510쪽; 「가치실천 양식의 전환」, 『인문학연구』 50,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2, 525~553쪽; 정민지, 「위기의 서사 틈바구니에서 민속 생태 다시 쓰기」, 『동방학지』 209,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24, 55~80쪽; 이영목, 「인류세에 대한 민속적 응-답」, 『공동체문화와 민속 연구』 10, 국립경국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25, 83~106쪽.

24) 관련 내용은 미셸 푸코, 오생근 옮김, 『감시와 처벌』, 나남출판, 1994 참조.

국면 속에서 삶의 조건을 조정하고 응답 능력의 배양을 거듭하는 실천으로서 재정의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청년이라는 개념 혹은 주체는 이러한 전제 속에서 핵심적인 분석 대상이 된다고 하겠다. 청년은 단일한 세대 범주나 규범적 생애 단계로 환원될 수 없는, 편재된 위기 속에서 전환의 국면을 통과하는 다중적 주체로 그 위상을 정립해볼 수 있다. 따라서 청년을 다루고 사유하는 이 작업은, 민속의 역사성과 현재성을 분리하지 않고 위기 조건 속에서 생성되는 존재양식 내지는 그 정치성을 엮어 사유하는 작업으로 의미화할 수 있다. 이에 이 글은 청년을 일종의 다중 주체로 설정하고, 그러한 주체성이 형성되어온 역사적 맥락을 간략하게나마 정리하는 한편, 오늘의 삶정치적 조건 속에서 청년들이 어떠한 구체적인 뒤엎힘과 배치를 통해 행동하고 실천하는지를 다루고자 한다. 이는 큰 틀에서, 민속을 과거의 유산 내지는 권력에 상관적인 잔여물로 해석하는 작업에서 벗어나, 오늘의 위기라는 것을 민속지식 생산의 전환 계기로 거울 삼아 재사유하고 그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는 한 가지 시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3. 위기와 청년, 담론적 상호성 혹은 역사적 주체성

‘청년’은 근대와 함께 출현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유년기와 성장기를 가리키는 말이 이전부터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근대가 도입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의미들이 경합하고 투쟁하는 장으로서 ‘청년’이라는 말이 좀더 복잡해지고 효과화된 것은 적어도 근대가 도입되는 과정과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그것이 정의되는 방식과 내용이 관심과 시선, 국면과 정세에 따라 달라져왔다는 것이고, 이는 담론적인 전략 혹은 주체화와의 연관 속에서 그 이면에 늘 정치적인 의도와 효과가 포개어져 있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청년’은 다수의 근대화 전략이 집약되어 충돌하며 경쟁

하는 일종의 장(場)²⁵⁾으로 기능해오고 있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청년이라는 말이 형성한 의미장이라는 열린 공간이 당대에 제기된 위기 담론과의 연관 속에서 유력한 담론 언어로 부상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선행 연구에 의거하여 한국 사회에서 위기와 연관 속에서 청년이라는 언어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청년’이라는 개념 혹은 담론의 역사를 탐구한 이기훈에 따르면, 1900년대를 전후하여 조선에 도입된 청년은 당시 젊은이들의 운동과 활동 그리고 그에 대한 지식인들의 시선과 주장 등에 의해 일정한 인간상으로서 제시되었다. 근대적 의미의 ‘청년’²⁶⁾이 도입된 이후 그것이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게 된 것은 1904년 러일전쟁 이후 대한제국 정부가 정치적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으며, 이때 대한제국이 주도해온 전통에 입각한 근대화 노선이 좌절되었을 뿐 아니라 국가의 생존 자체가 위기에 처함에 따라 ‘부국강병의 근대화’에 앞장서는 개화의 언어로서 ‘청년’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즉 사실상 실질적인 차원의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던 망국(亡國)의 역사적 위기 국면을 지나게 되면서 ‘청년’은 이른바 애국심과 계몽사상으로 무장한 ‘국민’의 선봉에 선 인간상으로서 제시되고 효과화되었던 것이다.

25) 이기훈, 『청년아 청년아 우리 청년아』, 돌베개, 2014, 19쪽. 이하 청년 담론의 역사적 전개 양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그 골자는 같은 책, 59~308쪽을 참조하였다.

26) 소영현, 「청년과 근대」, 『한국근대문학연구』 6(1), 한국근대문학회, 2005, 42~70쪽. 소영현에 의하면 청년은 미래를 담지하는 상징적 주체의 이름으로, 근대 매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담론이 생산되었다. 중요한 점은 청년의 호출 혹은 그로부터 형성된 청년 담론이 근대성의 작동을 압축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근대 이행기에 이루어진 청년이라는 말과 그 언어적·담론적 연관 관계는 이후 전개되었던 청년 관련 담론성과 주체성의 구조적 원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그 구조가 근대적 개인화에 대한 지향을 그 이면에 부착하면서 개인과 사회, 국가가 연결된 역학 구조를 유지해오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근대적 교육과 문화 같은 영역들은 꾸준히 그러한 정향을 체화하고 표면화하는 심급으로 존속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이상적인 청년의 상을 제시했던 이른바 ‘청년론’ 역시 그러한 당시의 위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또 그 위기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입장에 따라 분화되기도 했다. 이를테면 ‘청년’은 민족적 차원에서 근대 이전의 과거와 결별하는 문명개화적 젊은이라는 규정을 공통적인 인식으로 하되, 교육을 통한 계몽을 현실적인 근대화의 수단으로 삼기 위한 청년론이 전개되는가 하면, 인격과 정신을 닦고 수양하여 스스로 발돋움하기를 희망하는 청년론이 전개되기도 했다. 이러한 교육구국을 중심에 둔 청년론은 1910년대에 이르러 일정한 수정을 거치게 되었다. 식민 지배의 현실 속에서 ‘민족’이 정치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 단위로 떠오르는 가운데, 일본 유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신지식인’의 성장에 따라 자본주의적 근대에 앞장서는 인간형으로서 청년이 본격적으로 주체화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존재하던 국가가 없어진 상황, 즉 국가 없음이라는 위기를 인식함에 따라 교육과 계몽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청년상 혹은 청년론이 일제를 경유한 근대라는 전환기를 통과하는 초입의 조선 사회에서 일정한 담론적 공간 혹은 정치적 주체를 형성하는 효과를 이루었다면, 1920년대부터 ‘청년’은 민족운동과 문화운동의 활발한 부상 속에서 좀더 분화되고 확장된 사용법이 확보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청년은 당시 사회운동의 기본 단위라고 할 수 있는 민족 전체의 운명을 이끄는 통합적 주체이자 구시대와는 다른 의미 지향을 지닌 이들로서 그 이미지를 더욱 공고하게 확립했다. 여기에서 청년은 이른바 옛것과의 구별 속에서 ‘신문명’의 건설에 걸맞은 의무와 책임 그리고 역량을 갖춘 이들로 표상되었다. 이와 동시에 ‘청년’은 일정한 연령에 이른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 즉 덕성과 지성 혹은 개인의 인격 수양과 같은 방법론이 그러한 인간상에 이르기 위한 것으로 제시되기도 했던 것이다. 이러한 방법론을 근거로 하여 청년은 그 자체가 명확하게 연령을 기준이 되는 세대 개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치적인 언어가 되어갔다고 할 수 있다.

1930년대의 조선은 일제가 총독부를 중심으로 제국주의적 권력과 통제를

정책적으로 더욱 강화하고 그에 따라 좀더 유연한 통치기술이 개발되고 적용되었던 시공간이었던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청년'이 민족과 국민을 대표하고 이끄는 인간상이었던 것에 반해, 오히려 정책에 의해 체제의 전위로 포섭되는 과정이다. 총독부 권력은 청년을 지도와 훈련의 대상으로 훈육시킴과 동시에, 이를 통해 농촌사회를 통제하고 동원하는 핵심 매개자로서 위치시켜 식민 권력의 의도를 실행하는 구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이들로 배치시켰다. 중요한 것은 당시 조선의 사회운동 내부에서 청년론이 국가와 민족의 위기를 인식하고 그 위기를 해소하는 방법론의 차이에 따라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으로 양분되어 전개되는 가운데, 일제라는 제국주의적 권력의 위기에 따른 통치 방식이 유연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정치적인 입장과 욕망이 경합하고 있던 '청년'이라는 담론장이 더욱 다각화²⁷⁾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요컨대 이전까지 청년은 계급적인 차원을 그 안에 내포했다고 해도 계몽과 저항의 다른 이름이었다고 한다면, 이후부터 청년은 체제와 권력을 공고하게 하는 지배와 통치의 수단으로 흡수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1930년대 중반에서 1945년에 이르는 시기까지 전시체제하의 청년은 영웅

27) 천정환, 「식민지 시기의 청년과 문학·대중문화」, 『오늘의 문예비평』 55, 2004, 36~37쪽; 김지영, 「식민지 대중문화와 '청춘' 표상」, 『한국학』 34(3),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145~182쪽. 여기에는 근대 문학 혹은 근대적 대중문화의 형성 및 보편화가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천정환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대중문화의 발전사는 청년과 학생 '세대'의 형성이 근대적 대중문화의 성립 과정에서 계층·계급만큼 지대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청춘'이라는 젊음의 기표가 의미하는 바의 층위가 그것이 놓인 사회정치적 구조 및 그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들의 인식 지향과의 역학 속에서 결정되는 것임을 주목한 김지영에 따르면, '청춘'은 젊음을 주체화한다는 점에서 '청년'과 짝을 이루며 미디어와 근대문학의 보편화에 의해 국민국가와 문명건설을 추구하며 개체의 고유한 내면에 의미를 부여하는 이들로써 공적으로 표상되었다. 다만, 이른바 자본주의적 상품과 대중문화 산업에 의해 '청춘'이라는 기표는 그 이후에 이르러 통속화되기도 했다.

론과 파시즘적 전환에 힘입어 국가총력전의 주역이자 그 제일선에 선 전쟁기 계로 동원되기 시작했다. 근대적 인간으로 떠오른 청년상이 처음부터 교육과 계몽이라는 새로움과 연관되어 출현할 수 있었던 만큼, 청년은 그것이 놓인 국면적 상황에 따라 내부의 분화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하기보다는 기존의 가치관과 그것이 요구하는 자질을 되도록 온전하게 흡수하고 수행하는 이들로 표상되었다. 그에 따라 청년은 좀더 사적이고 속류화된 형태로 그 자신의 자리를 매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때로는 국가의 통치 자체를 역량화하는 이들로써 효과화되기도 했다.²⁸⁾ 이는 해방 이후 열린 정치적 공간에서 일정한 공백기를 거치다가, 전후 국가 중심의 재건운동이 전개되는 가운데 더욱 강화된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다.

물론 도시와 대학을 핵심 거점으로 한 학생운동과 민중운동의 역사적 계열 속에서 청년은 국가에 종속된 주체에서 젊은이로서의 상징성, 변화와 진보, 역사의 주체로서 그 자신의 의미를 회복하기도 했다는 점도 지적될 만하다. 4월 혁명을 지나 1960년대 학생운동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청년은 민족·민중·민주라는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이들로 자리를 매기면서, 청년은 저항의 전략적 시공간에서 다른 근대의 지향을 표방하는 역사적 주체로 다시금 변환되기도 했다. 또한 대학을 중심으로 한 소비문화의 확산에 힘입어 형성될 수 있었던 청년문화는 권위주의적 체제의 일상적 통제의 표적이 되는 한편, 그러한 체제의 억압 혹은 엄숙한 시대에 저항함과 동시에

28) 권명아, 「식민지 경험과 여성의 정체성」, 『근대문학』 6(1), 2005, 71~114쪽, 79~99쪽. 중일전쟁을 기점으로 한 총동원 체제 이후 식민주의적 주체 구성의 강제적 작용이 극대화되기 시작하면서 조선에서는 인종·젠더·세대·계급 등 복합적인 지점이 상호 교차하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년'은 교육받은 엘리트 계층 혹은 농촌 질서에서 배제되었던 중견 세력으로 육성되기도 했다. 이는 전적으로 일제 말기 파시즘 체제의 경험 속에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파시즘적으로 주체화 혹은 차이화된 정체성으로서 '청년'의 배치를 통해 전시 체제하의 활동·이념·교육 목표와 내용이 실천되기도 했다.

권력 밖의 다른 근대의 시공간을 열고자 하는 새로운 운동 모델의 원천 양식이 되기도 했다.

이전 시대에 형성될 수 있었던 소비문화의 경향이 1990년대에 이르러 좀더 본격화됨에 따라 청년은 이른바 ‘신세대’로서 소비 중심적인 문화 향유를 이끄는 이들로 표상되기도 했다. 이는 근대적 전환의 초입에 조건화되었던 ‘새로움’이라는 수식이 어느 정도 유지되었던 것이기도 했다. 이때 청년은 한편으로 20세기 말미에 이르러 문화장의 지배적인 경향으로 자리 잡은 소비적 취향을 지닌 첫 세대로서 문화적으로 주체화되었으나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단순한 소비의 객체²⁹⁾로서 비판적 대상이 되기도 했다. 요컨대 청년 세대는 개인주의적 성향이나 소비주의적 생활 등 정치적 변혁주체에서 소비지향적 감성주체로 그 자신의 정체성을 변화한 것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³⁰⁾ 이 시기 청년 담론을 둘러싼 특징 중 중요하게 언급할 수 있는 점은 종전의 학생운동에 비추어봤을 때, 이제는 청년이 그와 다르게 탈정치화되어 가고 있다는 인식과 담론이 형성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처럼, 당대 사회에서 청년이 지닌 주변적·객체적 위상은 2000년대에 이르면 더욱 강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청년은 곧장 ‘실업’이라는 단어와 연결되곤 했으며, 이제는 소비의 객체 자리에서조차 밀려난 우울하고 서글픈 현실의 단면을 함축하고 있는 말³¹⁾로 변하기도 했다. 자주 언급되지만, 백수·아르바이트·취업준비생·비정규직 등과 같이 저임금과 착취에 의한 빈곤 내지는 불안정성 등 동시대 청년이 처한 위기적 군상들을 대표하는 말로 ‘88만 원 세대’가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청년은 그 자신이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이자 문제 자체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³²⁾ 그에 따라

29) 최성민, 「“청년” 개념과 청년 담론 서사의 변화 양상」, 『현대문학이론연구』 50, 현대문학이론학회, 2012, 239~241쪽 참조.

30) 이동연, 「세대문화의 구별짓기와 주체형성」, 『문화과학』 37, 문화과학사, 2004, 143쪽.

31) 위의 글, 243쪽 참조.

배제된 자들로서 청년들에 대한 위로와 ‘힐링’ 관련 상품들이 생산되는 한편, 청년의 위기는 청년 자신이 자초한 것이라는 인식 하에 개인들의 사적 노력이 강조되기도 했다.³³⁾ 분명한 것은, 청년과 그 담론은 동시대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현상으로서 꾸준히 지속되고 있으면서도, 청년의 문화적 정체성 혹은 주변적 위상이 더욱 강조되는 편으로 사회적으로 인식됨에 따라 청년이 세대 간의 차이를 나타내기보다는 오히려 갈등의 양상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확립되어갔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루저 담론과 수저론 등이 세대 내의 계층적 격차를 담고 있는 말들이 성행함에 따라 세대 내의 갈등 역시 표면화되는 모습³⁴⁾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한국 사회의 근대적 재편과 대중화된 매체 문화의 형성과 변동 속에서 청년이라는 담론적 표상은 그 자신의 의미 변화를 거듭해왔다고 할 수 있다.³⁵⁾ 이 글이 주제화하고 있는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
- 32) 소영현, 「한국사회와 청년들」, 『한국근대문학연구』 26, 한국근대문학회, 2012, 387~416쪽 참조.
- 33) 이광석·윤자형, 「청년 대중서로 본 동시대 청년 담론의 전개 양상」, 『언론과사회』 26(2), 언론과사회, 77~127쪽.
- 34) 신광영, 「세대, 계급과 불평등」, 『경제와사회』 81, 비판사회학회, 2009, 35~60쪽. 그런 점에서 신광영은 외환위기 이후 소득 불평등이 특히 세대 내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천착하여, 종전의 세대론을 계급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즉 불평등 문제는 세대 사이에서보다 세대 내에서 더욱 크게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하여 특정 세대를 논하기보다는 생애과정을 거쳐 구조화되는 불평등 체제의 이해를 계급과의 관계 속에서 논의되어야 함이 주장되기도 했다.
- 35) 박이대승, 「‘개념’ 없는 사회를 위한 강의」, 오월의봄, 2017, 18~145쪽 참조. 현 시대 한국의 상황을 ‘개념언어의 부재, 정치언어의 과잉’으로 요약한 박이대승에 의하면, ‘청년’이라는 정치언어야말로 그러한 상황을 대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에 따르면 ‘청년’은 명확한 정의에 의거하여 사용되는 개념언어라기보다 지배적인 영향력을 지니는 정치언어에 더욱 가깝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청년’을 둘러싸고 의미 투쟁의 역사가 지속되어오고 있다는 점이며,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청년’이라는 언어를 경유한 새로운 정치전략의 가능성 역시 모색된다. 즉 부정적·한계적으로 고착된 ‘청년’의 이미지를 거스르고 그 언어를 되찾아 시민성의 권리를 회복하는

중요하게 지적될 수 있는 점은, 시대적 흐름이나 국면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청년이 다시금 사회적 위기의 인식 속에서 대안적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청년’이라는 표상으로 함축되는데, 사회적 경제와 사회혁신 활동 및 공동체 복원 등을 포함한, 사회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간주되면서도 경제적 생존이 가능한 일을 통해 국가와 자본의 실패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려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하는 이른바 ‘사회적 활동’의 부상³⁶⁾이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때 청년은 한편으로 사회적 책임과 돌봄이 부재한 현실의 위기에 대한 대안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러한 ‘활동’을 통해 경제적인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 자신이 처한 위기에 대한 대안이기도 했다. 이러한 담론적이고 실천적인 흐름에 따라 위기는 그 자체로 변화 내지는 도전의 기회와 가능성으로 자리매김된다.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청년상은 이들의 ‘사회적 활동’, 즉 재생산 위기에 처한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전담하는 것과 동시에 그러한 사회를 혁신하는 일련의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 새로운 공공 윤리를 정립하고 또 개척하는 것으로 의미화되곤 했다.

문제는 그러한 청년들의 활동과 그 의미 연관 속에서 형성되는 청년 담론이 제도와 정책적 조건에 의해 마련된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자율적인 활동이라기보다는 체제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가능한 활동들이 유형화되고 가능해진다는 점에 있다. 청년들의 활동에 부착되어 있는 ‘도전’과 ‘열정’

정치적 주체화의 경로로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글이 그러한 정치언어 자체에 관심이 있지는 않지만,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현재의 국면에 이르러 청년이라는 언어와 연결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또다른 언어들이 일정한 의미 연관 혹은 계열을 이루며 종전과는 다른 실천의 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때 ‘청년’이라는 말은 단순 명사라기보다 오히려 ‘떠다니는 기표’가 된다. 이 글이 ‘청년’과 함께 ‘위기’, ‘지역’, ‘재생’ 등의 언어도 함께 포괄하여 문제의식을 확장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라고 할 수 있다.

36) 류연미, 앞의 글, 30쪽.

등과 같은 수식들은 이들의 노동을 두고 자유 의지와 성찰적 계기에 의한 것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한편, 활동이라는 특수한 노동 형태를 향한 청년들의 진입을 매개로 이들의 삶 전체를 형태화하는 양상들로 이어지도록 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활동에 뛰어든 청년들에게 부여된 역할과는 별개로 이들의 낮은 임금과 그에 따른 빈곤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양상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그리하여 이른바 ‘사회적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사슬을 맺고 있는 청년이라는 말과 그로부터 이어지는 이들의 실천적 양상은 오늘날 좀더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4. 소멸 위기 속 ‘재생’이라는 뒤엎힘과 그 서사

앞서 ‘청년’이라는 말이 역사적으로 변화해온 과정과 그 이면에 놓여 있는 국면적이고 정치적인 성격 등을 선행 연구에 기초하여 함께 논의해보았다. 그러나 이 글의 관점에서 문제적인 것은, 필자가 공동체문화 실천 현장에서 우연한 계기로 만난 이들 중 오늘날 ‘청년’이라 불리고 있는 이들이 농·어촌 지역에서 자신의 가능한 활동들을 펼쳐내는 가운데, 반드시 ‘청년’이라는 기표로만 수렴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즉 ‘청년’이라는 정체성은 이들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구성하는 데다, 그런 점에서 이들의 삶과 활동은 ‘청년’ 담론의 가장자리 혹은 그 바깥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의도적이건 의도적이지 않건 그 활동이 지역이 처한 소멸 위기의 맥락에서 언제든 바로 그 ‘청년’의 활동으로 수렴되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위기에서 해소되어 나오기 위한 세대 주체였던 ‘청년’이 곧잘 그 자체가 위기로 인식되었던 것처럼, ‘청년’은 대중적·국면적 위기 인식의 주변을 맴돌며 언제든 그것과 결합될 수 있는 주변 기표라고 할 수 있다.

위기와 청년, 그리고 여기에 ‘재생’이라는 말이 가지는 함의도 함께 비추어

불 필요가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지역재생’이라는 이름, 즉 인구학적 측면에서 지역의 소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방법론으로서 ‘재생’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개별 인구에 대한 통치를 강화하는 대신, 지역 자체에 생명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역을 물질화하고 그러한 물질의 역동성과 활력을 강조함으로써 통치를 유연화하는 것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신유물론의 주요 갈래들을 정리하고 푸코의 논의에 기대어 ‘사물의 통치’라는 관점을 제기한 램케에 따르면, 현시대적 통치양식 혹은 새롭게 출현한 정치 기술들이 “한편으로는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사회-생태적 체계를 재조정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상사태를 예상함으로써 집단생활의 조건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필수 체계 안전 메커니즘들을 재조정할 수 있는 비인간의 역량을 가동시키는 실천들로 이루어져 있다”³⁷⁾고 지적한다. 이러한 관점에 기대어 보면, 오늘날 지역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재생’이라는 메커니즘은 개인과 인구뿐만 아니라 이들이 처한 환경 자체에 작용함으로써 객체들을 규격화된 주체로 훈육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직관되기 어려운 비유일지 모르겠으나 주체와 객체에 대한 이러한 시선을 가져와본다면, 지역을 사는 청년들은 사실상 객체의 위치에 서 있거나 그 위치로부터 자신의 삶을 시작하는 이들로 생각해볼 수 있다. 즉 구술을 통해 사후적으로 볼 때, 자신의 삶이 가져온 역사를 단절하고 지역을 살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오랜 기간 공고하게 자리 잡은 지역의 토착적인 문법은 자신을 객체로 만들고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로 작동한다. 이 지점에서 지적할 만한 것은 이른바 ‘지역재생 프로그램’이 이렇나 객체로서 청년들에게 주체화의 자리를 내어준다는 점이다. 지역의 소멸 위기와 맞물린 지역재생 프로그램을 통해 오히려 지역에서 살기를 실행하고 있는 객체 청년들은 비로소 주체 청년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기도 한다. 사실상 ‘주변환경’의 통치³⁸⁾라는 새로운 기술적 구성방식의 적용하에서 삶의 지속 혹은 그

37) 토마스 램케, 김효진 옮김, 『사물의 통치』, 갈무리, 2024, 293쪽.

역동이 가능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청년들이 그러한 통치 양식의 유연한 변화 앞에서 수동적으로 머물러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향한 적극적인 저항을 통해 온전한 자신의 삶을 추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이들은 그 사이 혹은 경계의 이쪽 저쪽을 오가기도 하고 그 가운데에서 팽팽한 줄타기를 하는, 즉 비유하자면 뒤섞인 채 이들의 삶의 지속과 역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재생의 동력으로 제공되는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도 그것이 가지는 운신이 자유롭지 못한 한계를 체화하여 정책에 깊숙이 개입하지 않기도 하고, 자신이 세운 가치와 지향을 이룬바 자기 '사업' 내지는 '활동'에 녹이고자 하는 모습이 더욱 공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문제는 연구 관심으로서 이러한 양상에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하는 것인데, 이 글은 그러한 단상을 얻을 수 있었던 청년들의 구술을 통한 자기 발화 내지는 그 경험적 사례들의 사후적 재현에 주목하고자 한다. 아래에서는 청년과 위기, 지역과 재생의 맥락에서 추구되고 있는 삶의 양태 혹은 그 전환의 지점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1) 정착 서사의 구축 혹은 단골문화의 복원을 통해 농촌의 연결성을 확장하기

스물여섯에 결혼해서, 마음을 딱 먹고, 둘다 그 해에 퇴사를 하고, 이제 1, 2월 바짝 준비를 해서, 마음의 준비였죠. 별다른 문제는 아니었고, 그냥 이제 5년 동안 저희는 사실 이 농촌의 어떤 문제들, 우리가 들어가서 이런 걸 해보면 어떨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커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풍선이

38) 위의 책, 290쪽.

점점 부푸는 것처럼, 내가 이 직장에서 이 일을 하고 있지만 계속 내 마음과 생각이 모든 것이 이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현실적인 부분보다는, 우리가 해결했으면 하는 문제점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17년 2월에 귀농을 했죠. 그때는 뭐 진짜 이런 번듯한 집도 없었고.³⁹⁾

위의 발화자는 지역에서의 삶을 이어가면서 다양한 입장 혹은 정체성이 공존하고 있다고 말한다. 즉 농장의 대표, 농부의 아내, 시골 집성촌의 며느리 등이 그것이다. 그는 “시골에 들어와서 창업을 한 케이스”에 해당하는데, 지역재생 프로그램의 맥락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예비하고 사회적기업하고 그러면서 비즈니스”와 필요에 따라 손을 잡으면서 삶을 지속하고 있다. 그는 “시골에 대한 베이스가 전혀 없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씨 집성촌 시대”에 살면서 “지나가는 할아버지가 저한테 제수씨 막 이러”는 상황에서 “컬쳐쇼크”를 느꼈다고 한다. 적응기를 거쳐, 그는 “3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제 안에 있던 원래”의 정체성과 “짜움이 많이 생”겼다고 구술한다. 지역에는 혹 “융화가 되는 사람이 있고, 못 견뎌서 유턴하는 사람이 있”지만, 자신은 “약간 퓨전이 됐다”고 본다. 본인이 가진 다양한 입장 혹은 정체성의 공존은 바로 “저만의 독특한, 그렇게 뿌리내렸다고 생각”한다.

그가 시골에서 이른바 ‘브랜딩’을 시작하게 된 것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 식구의 고향에서 농업에 뛰어들어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유통 과정이 너무 비합리적”이라는 점이었다. 이를테면 “우리는 마트에서 (농산물을) 이렇게 비싸게 주고 먹고 사는데, 이렇게 나무에서 금방 딴 이런 자두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길래 사람들은 먹을 수 없고 우리는 이제 이 공간(시골 농촌)과 이 공간(도시)이 완전히 지배하게 된” 것으로 느꼈다고 술회한다. “농산물 팔면서 브랜딩을 하기 시작했”던 이유는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즉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무조건 직거래로

39) A(여, 33세)의 구술(2023년 12월 7일, 농장 겸 민박집).

팔면...승산이 있지 않을까?”하는 의문이 농장 브랜딩의 시작이었다. 그는 단순한 이유 내지는 생존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것이, “이거 좀 잘못됐네 그럼 바꾸고. 또 좀 바꾸고. 이러면서 쌓이니깐 이런 스토리가 된 것 같”다고 말한다.

그는 농촌에서 경제적인 면을 충족하면서도 나름의 방식대로 살기 위해서는 ‘브랜드 스토리’의 구축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우리 콘텐츠”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는 애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온 거가 아니었”다고 한다. 시골과 마을의 일상 자체가 “자기의 놀이터”였다는 것을 일깨운 후, 농촌의 “비전을 봤던 것 같”다고 언급한다. 즉 농촌은 “농산물 뿐만이 아니라 이런 어떤 유무형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고 이 자원들이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엄청난” 것이라고 여겨져서 “진짜 금광을 캔 느낌이었”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이 외부자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선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 농촌 사람들은 그냥 여기가 자기들의 그거(터전)기 때문에 별로 감흥이 없”고, 단지 “일 구더기”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는 농민과 농촌의 자생력이 상실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요즘에 경험을 돈 주고 사는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도시 사람들에게 “마늘 캐는 것도 엄청난 이벤트”라는 점에 주목했다. “복숭아 따는 게 그냥 하나의 일이고 사람 사가지고 하는” 일이었다면, 그는 “이것을 원하는 사람들 갖다 매칭을 시키면 너무 재밌고 훌륭한 체험거리인데. 이런 생각을 계속 했던” 것이다. “맛있는 거 먹고 친구들 알려주고 싶은 것처럼” 그는 도시 사람들에게 “농촌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다고 술회한다. 농촌 체험 내지는 팜파티의 진행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는 그 연장선에서 ‘팬덤’ 그리고 ‘펀딩’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다. 그 계기는 자신의 경험을 블로그와 같은 소셜 미디어에 공유하면서부터였다. 그는 블로그를 통해 “사람들에게 우리가 귀농했음을 알리고 이렇게 했을 때...사람들은 정말로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응원해주고”와 같은 경험을 중요하게 새기게 되었다. 그는 그 경험을 두고 “본인들은 사실은 이 현실에

뿌리박혀서 뭔가 생계를 유지하고, 우리도 또한 생계를 유지해야 되지만. 조금 다른 색깔과 다른 환경에 도전하는 우리의 모습에 대리만족을 느껴서” 그런 것이라고 해석한다. 중요한 것은 그 자체를 “저희의 성장의 원동력이 됐”다고 그가 언급한다는 점이다. 시골 사람들의 사회에 비해 멀고 흐릿한, 일종의 반(半)대면적 관계이지만 박수와 응원, 후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느슨한 연결성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식으로 이렇게 농업을 계속 좀 하게” 했던 것으로 강조한다. 그는 그러한 ‘브랜드스토리’의 일환으로 민박을 운영하게 되자, 애초 연결되어 있던 방문자들이 자신들의 농장을 “더 입체적으로 느끼더라”고 언급한다. 온라인 기반의 ‘단골문화’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활동은 “초보귀농인, 예비귀농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이나 “청년들을 대상으로 뭐 만드는 프로젝트”로 이어지기도 했다. “다시 정말 와보고 싶은 그런 공간으로 여기를 앞으로 계속 꾸며가보고 싶”다는 그의 강조에서는 온-오프라인에 걸쳐 있는 다차원적인 공간, 그러나 그 실제와는 구별되어 매끈해진 공간으로서 지역에 대한 상상 혹은 경관 변화의 기점이 함축되어 있다. 즉 기술 영역과 문화 영역이 결합된 조건 자체가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골 내지는 지역에서 가능한 연결 방식 자체의 변화를 이끌고 또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2) 퇴조하는 ‘커뮤니티비즈니스’의 한계 속에서 청년살이를 모색하기

저한테도 그렇지만 지역한테도 소모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엔 그냥 그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사업비를 쓰기 위한 그런 용도로 소모되고 있는 거 아닌가? 정말 지역에 남는 일들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었고...좀 당사자로서 지역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에 내가 참여를 해보고 그런 쪽 일을 지역의 중심으로 잡고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지역을 갈까 찾아보기 시작했었고요. 그때 농촌에서 살아보기...⁴⁰⁾

위의 발화자가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으로 일을 시작하게 된 곳은 도시재생 관련 업무였다. 즉 관심사가 “커뮤니티 공동체”에 있었던 그는 “커뮤니티 빌딩 관련된 일들을 주로 했”다. 그 일이라 함은 주민들로 하여금 “도시재생이 뭔지 설명해드리고 교육해드리면서 왜 주민분들이 모여서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동기부여 같은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교육하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그가 느낀 한계는 “마스터플랜 위주로 모든 작업이 진행”된다는 점이었다. “이게 정말 그 공동체를 위한 디자인인가?”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고, 그것이 “누구 몇몇의 개인한테는 좋은 일이 되겠지만 여기 참여하지 않는 어떤 몇몇 사람들한테 자기의 삶의 터전이 사라지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지금의 지역으로 이주하게 된 것은 “농촌에서 살아보기”라는 사업을 통해서였다. 그가 2년 남짓한 시간에 걸쳐 정착을 경험하고 있는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귀촌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는 곳이다. “비슷한 시기에 동기들처럼 이렇게 정착을 하다보니까...알 수 없는 연대감이, 동기같은 연대감이 있다보니까 이 친구들끼리가 또 하나의 공동체처럼 또 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 이들은 그와 마찬가지로 함께 곳곳에 자리하며 “소그룹처럼 지역에서 재밌게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는 “어쨌든 지역에서 오래 살기 위해서...귀촌했던 친구들끼리 우리가 지역에서 재밌게 잘, 도시보다는 잘 살고 싶어서...청년공동체 하나 만들어서...청년공동체지원사업”을 받아 “캠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기는 하지만, 지역에는 청년들의 ‘일자리’ 혹은 ‘돈벌이’에 대한 고민이 있다. 그것이 “내가 꼭 이 지역에 있어야 된다는 안정적인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

40) B(남, 37세)의 구술(2024년 8월 7일, 지역 게스트하우스).

때문이다. 그런데 지역에서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벌이로 수단화 되지는 않는 특성이 존재한다. 지역은 반드시 연결을 통해서만이 생존할 수 있는 곳이자 “사업이라던가 삶이라던가 그런 걸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곳”인 데다, 그러한 지역에서 온전한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발언권”이나 “기반들”, 그리고 “책임”을 나누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역의 일자리는 그러한 함축적인 의미가 있다.

그는 그럼에도 청년 입장에서 지역의 미래가 밝지만은 않다고 전망한다. 지역에는 농촌학교살리기, 로컬푸드, 도시재생, 커뮤니티비즈니스 등 그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해온 십수 년의 역사적 지층이 존재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한 영역 혹은 역량이 정체 내지는 쇠퇴를 거듭하고 있는 데다 하나의 돌파구로 선택되어 비로소 마련된 청년 지원 정책 역시 그 성과에도 불구하고 자원 배분의 역효과에 따른 부정적인 시선 역시 뚜렷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풀뿌리 활동했던 이들이 다 군청이 소유하고 있는 데었는데… 지금은 다른 지역으로 다 옮겨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지역이 “가지고 있었던 장점이라던가 아이덴티티를 조금씩 불과 몇 년 사이에 지워지고 있는” 것을 목도하며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쉽사리 좌지우지되는 상황에 그는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그는 때로 체제에 의해 자신들의 활동이 “잘 활용”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처음엔 기회같이 다가오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소모될 수 있겠구나라는 약간의 두려움”이 자신 뿐 아니라 지역 전반에 팽배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생존의 위기 내지는 두려움의 상황에서 그는 공동체 활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개인 창업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즉 “그거(공동체)의 영역이랑 내가 돈을 버는 영역이랑은 조금 구분을 해야겠다”고 그는 언급한다. 왜냐하면 둘의 “줄타기에 실패하는 순간 공동체도 깨져버리고 수익도 깨져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자율성과 수익성을 좀 보장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는 한…서로 좋고 좋다 뭐 이런 걸로는 접근을 하면 안 되겠다”는 느낌을 그간의 체험 속에서

통감하고 있다. 서로 상반되어 보이는 공동체와 창업이 서로 결합된 채로 진행되어 왔던 지역의 역사적 맥락이 현재 시점에서 보이는 한계를 직접적으로 마주하면서, 그에 대한 돌파구로서 그 둘의 분리를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주목하고 있는 것 역시 A와 마찬가지로 ‘브랜딩’에 대한 추세이다. 이것은 “서울에서였으면 조금 어색하다라고 했었을 법한 일들이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경험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를테면 ‘로컬 브랜딩’과 같은 “실제로 수익을 벌 수 있는…지역 기반을 실제로 만들 수 있는 사업 같은 것들을”, 유사한 문제의식을 가진 이들과 함께 준비하고 고민하는 중이다.

그가 서 있는 위치 내지는 그간의 경험 속에서 가진 시선에 입각할 때, 현 시대 지역에서 ‘청년’을 불러오는 이유는 꽤나 복잡적이다. 그의 생각에 따르면 이것은 “도시적 관점”과 “공동체적” 관점이 서로 짝을 이루면서 진행되는데, 먼저 청년은 “인구 감소, 소멸 지역지수”와 같은 주요 지표들 통해 추산되고 있는 “경제 생산 가능 인구”와 “출산 가능 여성”들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그는 청년이 “지역에서는 어쨌든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정확한 수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주요 지표로 작동하는 가운데 호명되고 있다고 본다. 다른 한편에서, 지역과 공동체의 맥락에 있는 기성세대들로 하여금 청년은 “자기네들의 문제라던가 뭔가 부딪쳤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다양성”인 것 같다고 그는 언급한다. 즉 지역 운동과 실천의 위기와 난관에 봉착한 가운데 “미래지향적이면서도…희망과 기대”의 다른 이름이 바로 청년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지역에서 바라보는 청년”이라는 것이 뚜렷한 구분 속에서 인식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왜냐하면 지역의 위기를 “모두가 느끼지 않은 상태에서 등장한 청년은…단순한 외지인이 되는 거고” 지역의 위기를 계기로 하여 “와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은 뭔가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무언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녹아 있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지역 공동체들이 새로 온 사람과 어떻게 접점을 만들고

연결될까”와 같은 고민이 그에게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그는 지역의 청년으로 남아 있는 이들은 “자기 걸 찾고 싶은 사람들이 좀더 빨리 쉽게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한다. “뭔가 자기 콘텐츠를 실험해보고 싶다거나 사업이라던가 자기 창업이라던가 자기 활동…이런 거 해보고 싶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더 가벼운 지원사업…그런 걸 기회삼아가지고” 지역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다. 결국, “자기가 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지내면서…실험하고 확장해나가면서 자기 아이템 개발하는 식으로” 지역 청년살이의 전반적인 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3) 지역운동의 자치적 전환과 그 난관 앞에서 지역살이를 유지하기

기자 일을 하면서 지역에서의 삶을 좀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마치 돋보기를 들고 꼼꼼히 볼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지금도 사실 그렇고. 그 과정 자체가 학교에서는 전혀 배울 수 없었던 어떤 새로운 세상. 매번 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이런 순간들이 사실 지금도 있거든요. 10년 넘게 동네에 살았지만. 계속 이런 게 있구나. 동네의 삶에 이런 게 있고…지역에서의 사람의 삶을 들여다본다는 게 이런 경험이구나 하는 걸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 계속 있어서.⁴¹⁾

위의 발화자는 이전부터 지역에 살면 ‘패배자’라는 통상적인 인식에 대한 반감과 질문이 막연하게나마 있었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나고 자란 지역과는 또 다른 농촌 지역에서 자신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 계기는 ‘기자라

41) C(여, 38세)의 구술(2024년 8월 8일, 지역 공유공간).

는 직업적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서부터였다. 즉 지역언론에 기자로 근무하게 되면서 지역의 일 또는 지역 사업에 눈을 돌리게 된 사례에 해당한다. 위의 언급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지역언론의 기자라고 하는 직업은 지역의 삶과 이야기를 좀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했고, 그 과정에서 쌓인 체험들이 십수 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역에 살도록 한 원동력이자 지역에 대한 관심을 넓힐 수 있게 한 계기가 되었다. 이는 자기 정체성 혹은 자기 가치화와도 연동되어 있는데, 직업적 일을 통해 지역 현장을 뛰면서 지역이 가진 자치운동의 역사와 토착적인 문법을 함께 익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의 입장과 어느 정도 동화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지역언론은 그러한 경험이 “충분히 가능했던 환경”이었다. 즉 그곳은 “지역사회의 변화를 계속해서 추동해오고 어떤 면에서 견인하기도 하고 혹은 지역사회 변화에 원동력을 지지하기도 했던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던 것이다.

하지만 어떤 시점에 이르러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신문을 보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었다. 즉 “세월이 바뀌면서” 더 이상 신문이 지역의 “이슈파이팅”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렇다면...뭔가 다른 영역에서 다른 방향으로 이슈파이팅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와 같은 고민을 가지게 되었다. 여기에 “신문이 어쨌든 30년을 이렇게 발행해오면서 축적해온 유무형의 자원들이 있는데, 그게 활용되지 않고 계속 휘발되고 있다라는 문제의식”이 더해져, 문화콘텐츠사업단을 조직하기에 이른다. 이는 지역사회 전반의 문제 인식이 변하게 된 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종전의 지역언론이 “비판저널리즘의 영역”에서 문제를 지적하는 역할을 했다면, “공동체적인 어떤 네트워크들을 좀더 강화하고 우리 지역의 자원들...문화자원들, 인적자원들에 대한 발굴을 하기도 하고 기록을 하기도 하고 전파를 하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좀더 중심되게” 하는, 이른바 자치운동 쪽으로 그 방향이 일정하게 전환되었던 것이다. 이는 “사회적경제 영역에서의 어떤 지원사업이나 붐들”이 일어나는 시기적 맥락과도 맞물려 있었는데,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의 지원을

통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사후적인 측면에서 일정하게 지역이 그 자신의 전환을 경험한 것이지만, “독립되어 있는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구성원들의 고민 속에서 탄생했던” 것이었으므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지역의 자치운동을 견인하는 역할을 희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역은 자치운동의 소실 위기에 끊임없이 직면하며 “사업화”의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어 “프로젝트”를 통해 “활동의 구심을 만”들어감으로써 “돈을 벌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들, 돈이 목적이 아닌 일들”을 느슨하고 자유롭게 하는 것을 지향하는 이들과 의견 차이가 존재하기도 했다. “지원을 받게 되면...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는 데다 “필연적으로 거기에 맞는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물론 C는 “각자의 생업들은 따로 있더라도...수익을 내는 일은 아니지만, 그치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들을...정말 자유롭게 할 수 있”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지역의 역사 문화를 다 기록해왔다라는 자부심이 항상 내부에 있다”고 보는 그에게 “지역의 자원들을 좀 건강한 방향에서 지역의 관점으로 활용하고 만드는 활동들”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그에게 있어 “조직의 비전”은 지역의 일을 이끄는 회사의 운영 그 자체, 혹은 다른 무엇에 있다기보다는, “결국 구성원들...구성원들의 어떤 성장, 이들의 지속가능성”에 있다. 십수 년 간의 지역살이를 지속하면서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가 여기(지역)가 되는...이력서에 나의 경력을 쓰기 위한 공간이 여기가 되는” 것을 자주 경험했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인큐베이팅을 하는 인큐베이터로서의 역할로 자족”한다면 모르겠지만, 지역은 그러한 문제의 반복 속에서 “엄청나게 소모적인” 입장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여기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 또 “여기는 여기대로 계속해서 갈수록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는 “우리 조직은 청년이에요, 여기에는 다 청년들이 많아요”와 같은 구성원들의 외부 홍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이 지역만의 특수한 상황도 아니다. 지역이 “사실은 더 문턱이 낮”기 때문이다. 즉 “지역에 사람이 워낙 없기도 하고, 일할 사람도 없고…우리는 누가 됐든지 간에 와서 일하겠다고 하면 아 감사합니다 하고 일을 해야 하는 형편”에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여전히 주변적인 위치에서 오는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언론과 살림조합, 돌봄공동체와 교육네트워크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자치운동은 지속 혹은 부침을 거듭하고 있다. 이를테면 “어린이들 대상으로 기후위기를 키워드를 가지고…생태적인 먹거리를 배워보는 활동”이라거나 “목공이랑 직조를 배워보는 활동, 그리고 공동체성을 길러보”는 문화사업들이 풀뿌리적인 위치 내지는 그 노력 속에서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길러진 역량들이 면리 단위로 전파되어 작은 규모에서 점조직처럼 활성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돈을 버는 사업은 따로 있”다. 즉 “용역이나 외주 작업들”이 그것인데, “인건비는 그런 걸로 벌고…잡지나 공간 운영”은 “실제로 돈이 되는 사업들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지향을 보여줄 수 있는 사업들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여건상 이 같은 사업들조차도 “갈수록 좀 경영적으로는 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

그는 “청년이라는 단어 자체가…참 피로한 것 같”다고 언급한다. 즉 “청년 뭐 이렇게 하면 이미 거기서 흥미가 확 식거든요. 너무 많아가지고. 뻔하다”고 토로한다. 그럼에도 청년이라는 말이 자꾸만 입에 오르내리는 이유는 “너무 좋은 피난처 같은 말”인 데다, “그냥 그거 붙이면 일단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되는. 뭔가가 되고. 뭔가가 될 것처럼 기대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의 입장에서 사실 “지역소멸이라는 건 청년이 없어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뭔가 좀 계속해서 답이 아닌 것을 향해서 다 같이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참 딜레마”인 것은 “외부로 진행하는 문화기획 사업들”의 경우, “대부분이 다 청년들 대상”이라는 점이다. 지역살이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자신들도 “계속 청년에게 어필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현재 호명되는 청년들은 “다 어떤 문화적인 자원이

있는, 자본이 있는 사람들”인 데다 “체제 전환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결국은 청년이고 뭐고 지역이고 뭐고 문제는 사실 해결되기 어렵다는 생각” 속에서 그러한 체제의 요구 속에서도 지역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그는 강조한다. 즉 “균열을 내거나 사람들에게 뭔가 다른 걸 보여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이라는 공간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지역에는 이미 “그런 문제의식이…몸에 이미 좀 익히고 있으면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한다. 지역을 상품화하기는 해도 ‘로컬’이 문화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장면을 보아도 “한 10년을 또 버티면 그때 좀 뭔가 다를 수도 있겠다”고 느슨한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다만 그는 현재 무엇보다 “작은 이야기”에 주목하고 있고,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 중의 하나”라고 믿고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동네잡지와 같은 “존재들”이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서 “지역에서의 삶…그런 나름의 자기들의 그라운드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4) 홀로서기를 근간으로 한 품앗이 관계 형성을 통해 지역 경관을 입체화하기

퍼스널 스페이스가 되게 중요한 환경이잖아요. 근데 너무 잘 맞았어요. 저랑. 자극이 없고 근데 거기 살고 싶지 않았던 게 저는 고향이 좋거든요. 우리 집이 좋고 내 가족이 옆에 있어야 하는 사람인데…회사의 성장이랑 나의 성장이 같이 가지 않는구나. 나는 원래부터 내 사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내 거를. 약간 꿈이 작은 비스트로 운영하는 그런 느낌의. 약간 시골에서. 그래서 고향에 오면 그런 걸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모르겠다 하는 찰나에…도시청년시골과견제를.⁴²⁾

위의 발화자에게는 자신을 둘러싼 ‘관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화두로 자리 잡고 있다. “지역에는 사실 인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신이 중요하게 맺고 있는 관계를 두고, 그는 “친구는 아니란 말이에요 서로 관계가. 존대를 다 해요…사업적으로 많이 얽여 있고”라고 말한다. 즉 이 관계 안에서는 스스로 “공동체 아니냐”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저 “친한친구라고 부르기”도 하며 “품앗이”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그 관계 형성의 기본적인 근간에는 “협업”이 자리하고 있다. 그는 “서로 사실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 재밌”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거는 친구 관계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다.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결이 통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서로 편해지는 관계를 지향하지 않는데, 그저 “지역에서 오래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이지만 “혼자 살아갈 순 없”으니 “그냥 잘 먹고 적당히 워라벨 지키면서 살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다. “다들 개인주의가 되게 강”한 이유도 그래서인데, “자기 사업을 하고…자기 일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선의의 핏퐁”이 오가는 “점조직처럼 같이 소통”하는 관계 형성을 통해 지역살이를 지속해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들이 정책적 지원사업에 뛰어들어보지 않은 것은 아니다. D만 보더라도 애초에 고향에 돌아오게 된 계기가 도시의 청년들을 시골로 파견하는 정책사업이기도 했고, 지역 청년들로 하여금 마을사업에 뛰어들도록 하는 일에도 동참해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그 경험 속에서 지역살이를 지속하기 위해서 어떤 관계를 지향해야 하는지 더욱 뚜렷해졌다고 말한다. 그는 “커지는 건 저희는 원치 않”는다고 언급한다. 즉 “상처를 받은 경험이 좀 있”는 이들이지만, 이들은 “보통 기버(giver)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결에 맞는 사람들이… 그냥 한두 명씩 모이면 계속 모아…우리 모임 안에서” 관계를 지속하기를

42) D(여, 35세)의 구술(2023년 12월 8일, 카페).

원한다. 하지만 그 관계조차도 상대적으로 소통이 부재한 청년 남성이나 여성이 주도하는 조직이나 기관과 엮일 때면 “이걸 청년 모임, 이렇게 묶어버리”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

그러한 시선을 바라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도 “자립”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화두가 된다. “자립이 안 된 사람들이랑 같이 하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책임지거나 혹은 그 사람이 이걸로 뭔가 수익 창출을 할려고 하는 그게 크다 보면, 그게 휘둘리다 보면 다 뿔뿔이 흩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개인주의적 성향이 오히려 관계를 가능케 하는 계기가 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이 관계에서 “뭉쳐서 하는 일”이라고는 “프로젝트”가 기본이다. 프로젝트를 할 때면, “메인”과 “서브”는 때에 따라 정하고, 그것이 끝나면 흩어지는 식이다. 그는 이전 경험 속에서 협동조합에 대해 부정적인데, 그것이 “계속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만나서 자꾸 자기들 좋을 일만 하자고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딘가에 소속되기보다는 프로젝트 위주로 모였다 흩어지는 방식의 느슨한 관계를 택하고 있다. 다만 그 자체를 좋아하고 또 모두가 그것을 통해 재미를 느끼더라도 고민은 “꼭 수익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고민거리이기도 하다.

그는 공공 영역에서 오히려 사적 이익을 노골적으로 추구하는 장면들을 목도하면서, 사후적이지만 자립에 기반한 협업적 관계를 통해 지역을 입체화하는 것으로 자신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물론 이것은 어느 기관에서 활동가로서 종사하는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사업적 맥락과 더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다. 그는 “개인의 취향이 되게 중시”되는 시장에서 지역 자원을 통한 “다양한 상품군을 좀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제는 하나의 수익으로 뭔가 지탱하기보다는 다양하게 하고 계속 자기개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내보이기도 한다. 즉 “하나의 구조가 아니고 여러 가지 구조” 속에서 수익화의 방향을 계속해서 모색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각자 가진 다른 재주들을 협업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의 관계를 통해 구현할 수 있다고 본다.

5. 조건화/블록화된 역량 혹은 다양한 삶 양식의 역동

앞 장에서 제시한 네 사람이 사후적으로 재현한 구술 발화자료 혹은 그 사례가 오늘날 한국의 청년 모두를 대변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지역의 청년살이 혹은 청년의 지역살이를 위해 분투하고 있는 이들이 지역이 보이는 퇴조 혹은 개인 역량의 한계 속에서, 때로는 제도와 정책의 힘에 기대고 때로는 곁에서 함께 발 딛고 있는 이들에 기대어 나름의 삶 양식을 구축하고 그로부터 대안적 의미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양상에 대한 해석과 입장은 상당 부분 상이할 수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의 유연한 통치 기술이 사회적인 것의 확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좀더 유의할 때, 공동체문화 현상이 현재의 시점에서 보이고 있는 한계는 쉽사리 역량의 흡수 혹은 포획된 저항이라는 언어로 수렴될 수 있다. 그런 반면, 그 현상이 지닌 지속과 대응 혹은 반복과 지향을 통해 실천 현상이 지닌 잠재성과 대안성에 좀더 주의를 기울일 수도 있다.

흥미로운 것은 청년 세대를 다룬 다수의 연구들 역시 마찬가지로인 것으로 보인다. 혹자는 청년이라는 언어를 경유하여 더욱 강력해지고 유연해진 통치성을 문제화하기도 하고, 또 다른 혹자는 청년이라는 언어 자체가 공허한 정치언어로 치부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이라는 언어가 지닌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한 것은 분명해보이는데, 한국 사회가 근대적으로 재편된 이래 청년이라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던 적이 없고 심지어 국면성을 반영하면서 그 언어의 의미 계열과 그에 따른 언어적 접합이 달라져 왔기 때문이다. 언어와 주체성을 구분할 수 있다면, 언어의 사용과 별개로 청년이라는 주체성 자체는 지속적으로 주변적으로 존재해온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정치와 문화 지형에서 청년의 자리가 늘 마련되어 왔지만 이들이 중심을 차지했던 적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차지하더라도, 청년의 주체성이 계속해서 강조된다는 점은 역설적으로 이들의 주체성이 온전하게 인정된 적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청년은 늘 주체화의 대상이었

지 그 자신의 주체성이 정치장과 문화장에 기입된 적은 소략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이 문자화된 자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 대신 구술 자료를 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연구 담론장의 구도가 공동체 실천이나 청년 활동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대한 해석과 입장에 따라 양분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해석되지 않는 그 현장의 경계 혹은 가장자리의 발화와 행동들을 주목해보기 위해서이다. ‘위기와 공존하기’라는 논제 역시 그저 살아가기를 지향하는 이들의 삶 자체가 극복 불가능한 위기 속에서 가능한 삶의 대안을 찾아가는 여정들을 총합하고자 하는 의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현재의 시점에서 청년은 분명 ‘위기’는 물론이고, ‘지역’ 그리고 ‘재생’이라는 새로운 조건 혹은 블록이 마련한 자리에서 다양한 삶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고 판단한다.

남겨진 과제가 있다면 오늘의 상황이 신자유주의와 위기의 친연성 속에서 구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위기에 대한 대안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오히려 위기를 지속시키는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라는 혹은 그것이 야기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추세가 점점 과시증적인 방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고, 오히려 그러한 세력의 대안으로서 극우적 흐름이 부상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지점에서 결국 핵심은 주권의 문제인지 모른다. 신자유주의 아래 지역 또는 청년과 같은 주변적 흐름에 적은 시혜를 베풀어 블록화하되, 수도 또는 특권과 같은 중심적 흐름에는 더욱 큰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그 체제를 존속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의 편재성과 그러한 다층적 위기 속에서 공존하며 구성되는 삶 정치적 차원을 주권적 측면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신자유주의와 위기, 그리고 지역에 대한 사유를 엮어 짜는 과정에서 형성되고 있는 삶정치적 형태 내지는 그 경계에 대해 천착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저서

- 박이대승, 『‘개념’ 없는 사회를 위한 강의』, 오월의봄, 2017.
- 이기태, 『읍치 성황제 주제집단의 변화와 제의 전통의 창출』, 민속원, 1997.
- 이기훈, 『청년아 청년아 우리 청년아』, 들베개, 2014.
- 이상일, 『충격과 창조』, 창문사, 1975.
- 임재해, 『민속문화론』, 문학과지성사, 1986.
- 맛시모 데 안젤리스, 권범철 옮김, 『역사의 시작』, 갈무리, 2019.
- 미셸 푸코, 오생근 옮김, 『감시와 처벌』, 나남출판, 1994.
- 발터 벤야민, 최성만 옮김,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 폭력비판을 위하여 · 초현실주의 외』, 길, 2008.
- 토마스 램케, 김효진 옮김, 『사물의 통치』, 갈무리, 2024.

논문

- 강등학, 「21세기 민속학의 과제와 전망」, 『한국민속학』 40, 한국민속학회, 2004, 25-40쪽.
- 강석민, 「공동체문화라는 문제계의 담론적 의의」, 『공동체문화와 민속 연구』 6, 국립경국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23, 7-52쪽.
- 강정원, 「동계 전승주체의 변화」, 『한국민속학』 36, 한국민속학회, 2002, 1-25쪽.
- 권명아, 「식민지 경험과 여성의 정체성: 파시즘 체제하의 문학, 여성, 국가」, 『근대문학』 6(1), 2005, 71-114쪽.
- 권수빈, 「지역과 청년, 그리고 탈-활동: 청년 활동가 정체성의 균열과 문화정치적 재구성」, 『민주주의와 인권』 22(3),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22, 79-140쪽.
- 김은지, 「사회혁신, 변화를 ‘제작’하는 사회운동의 등장: 희망제작소와 서울혁신파크를 중심으로」, 『문화와사회』 26(2), 한국문화사회학회, 2018, 379-429쪽.
- 김정하, 「개항지 도시민속의 식민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동북아문화연구』

- 37, 동북아문화학회, 2013, 147-167쪽.
- _____, 「도시마을민속의 타자성과 주체성: 부산의 사례를 중심으로」, 『민속연구』 36, 국립경국대학교 민속학연구소, 9-31쪽.
- 김주환, 「사회적 기업 성공담론의 구조와 신자유주의 헤게모니」, 『문화와사회』 16, 한국문화사회학회, 2014, 223-274쪽.
- _____, 「한국에서 사회적기업과 신자유주의 통치: 사회적인 것의 통치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110, 비판사회학회, 2016, 164-200쪽.
- 김지영, 「식민지 대중문화와 ‘청춘’ 표상」, 『한국학』 34(3),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145-182쪽.
- 김태우, 「조선 후기-일제강점기 도시지역 민속의 주도 집단, ‘민’에 대한 개념의 확장: 서울 지역 공동체의례를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57, 한국민속학회, 2013, 177-204쪽.
- 남근우, 「도시민속학에서 포클로리즘 연구로: 임재해의 ‘비판적 성찰’에 부쳐」, 『한국민속학』 47, 한국민속학회, 2008, 29-69쪽.
- _____, 「공공민속학의 가능성과 한계: 두 민속지 실천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71, 한국민속학회, 2020, 77-118쪽.
- 류연미, 「지속가능한 삶으로서의 활동: 서울시청년일자리허브와 청년 활동악의 실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박주형, 「도구화되는 ‘공동체’: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공간과사회』 43, 한국공간환경학회, 2013, 5-43쪽.
- 박해궁,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역할」, 『사회적기업연구』 4(2), 사회적기업연구원, 2011, 137-147쪽.
- 박환영, 「한국 도시민속학의 연구동향」, 『민속학연구』 23, 국립민속박물관, 2008, 209-224쪽.
- _____, 「도시민속 연구의 방법과 영역」, 『한국민속학』 54, 한국민속학회, 2011, 155-189쪽.
- 배영동, 「전통적 마을민속의 공공문화 자원화 과정: 안동 하회탈놀이와 국제탈춤페스티벌의 경우」, 『비교민속학』 58, 비교민속학회, 2015, 97-136쪽.
- _____, 「산업화에 따른 마을공동체 민속의 변화와 탈맥락화: 산업농 등장, 탈맥락적 민속, 마을 초월적 전승주체를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62, 비교민

- 속학회, 2017, 159-189쪽.
- 소영현, 「청년과 근대: 『少年』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6(1), 한국근대문학회, 2005, 42-70쪽.
- _____, 「한국사회와 청년들: ‘자기파괴적’ 체제비판 또는 배제된 자들과의 조우」, 『한국근대문학연구』 26, 한국근대문학회, 2012, 387-416쪽.
- 송기태, 「농악 전승집단의 새로운 생태계 구축과 예능 복원·재현의 가치: 고창농악보존화회를 주목하며」, 『남도민속연구』 39, 남도민속학회, 2019, 201-234쪽.
- 신광영, 「세대, 계급과 불평등」, 『경제와사회』 81, 비판사회학회, 2009, 35-60쪽.
- 유목화, 「낙안읍성 대보름 민속의 현대적 재구성」, 『실천민속학연구』 29, 실천민속학회, 2017, 275-305쪽.
- 이경엽, 「무속의 전승 주체: 호남의 당골제도와 세습무계의 활동」, 『한국민속학』 36, 한국민속학회, 2002, 181-209쪽.
- _____, 「무형문화재와 민속 전승의 현실」, 『한국민속학』 40, 한국민속학회, 2004, 293-332쪽.
- 이광석·윤자형, 「청년 대중서로 본 동시대 청년 담론의 전개 양상」, 『언론과사회』 26(2), 언론과사회, 77-127쪽.
- 이동연, 「세대문화의 구별짓기와 주체형성: 세대담론에 대한 비판과 재구성」, 『문화과학』 37, 문화과학사, 2004, 135-153쪽.
- 이상현, 「1960-80년대 운동권 지식인의 민요 인식과 민속학자의 민중 인식」, 『실천민속학연구』 24, 실천민속학회, 2014, 5-37쪽.
- _____, 「운동권 지식인의 민요 인식과 민중 인식」, 『실천민속학연구』 24, 실천민속학회, 2014, 5-37쪽.
- _____, 「권력과 저항 사이에서: 1980년대 민속의 정치적 의미 변화의 배경과 과정」, 『한국민속학』 69, 한국민속학회, 2019, 7-36쪽.
- 이영목, 「인류세에 대한 민속적 응-답: 무위당 생명사상의 현재성과 대안성」, 『공동체문화와 민속 연구』 10, 국립경국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25, 83-106쪽.
- 이영배, 「민속연구에서 문화이론의 문제설정」, 『비교민속학』 47, 비교민속학회, 2012, 11-48쪽.

- _____, 「붕괴의 시대, 연대의 전망: 민속연구에서 연대의 문제설정」, 『코기토』 77,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5, 252-286쪽.
- _____, 「마을행동, 사회적 연대의 민속적 배치와 생성」, 『인문학연구』 35,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7, 112-152쪽.
- _____, 「사회적 연대의 소스 코드로서 민속의 변환과 생성: 행동의 형태로 본 세시풍속과 촛불행동의 다중적 연관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66, 한국민속학회, 2017, 7-32쪽.
- _____, 「공동체문화 실천의 역사적 원천과 그 재생의 특이성: 민속학적 입구 전략과 기본 문제의 이해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70,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9, 169-196쪽.
- _____, 「공동체문화 연구의 민속적 패러다임 정립을 위한 기획: 흐름, 초기 조건, 그리고 공통장」, 『인문학연구』 40,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9, 267-302쪽.
- _____, 「공동체문화 실천의 동인과 대안의 전망」, 『인문학연구』 42,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0, 483-510쪽.
- _____, 「가치실천 양식의 전환: 인류세, 지방소멸, 공동체문화」, 『인문학연구』 50,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2, 525-553쪽.
- 이옥희, 「전승주체에 따른 상여소리의 전승맥락과 지속가능성: 광주광역시 상여소리를 중심으로」, 『한국민요학』 58, 한국민요학회, 2020, 139-171쪽.
- 이진교, 「하회 선유줄불놀이의 재현사와 전승 주체의 다변화」, 『실천민속학연구』 44, 실천민속학회, 2024, 229-269쪽.
- 이훈상, 「조선후기 읍치 사회의 구조와 제의: 향리집단의 정체성 혼란과 읍치 제의의 유희화」, 『역사학보』 147, 역사학회, 1995, 47-94쪽.
- 임재해, 「민속의 전승주체는 누구인가」, 『민속연구』 1, 국립경국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1, 47-80쪽.
- _____, 「민속학의 새 영역과 방법으로서 도시민속학의 재인식」, 『민속연구』 6, 국립경국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6, 23-55쪽.
- _____, 「민속문화의 공유 가치와 민중의 문화주권」, 『한국민속학』 40, 한국민속학회, 2004, 109-178쪽.
- _____, 「민속문화의 전승주체와 민중의 문화창조력」, 『실천민속학연구』 6, 실

- 천민속학회, 2004, 9-58쪽
- _____, 「지역화」의 문화적 전망과 민속문화의 문화주권 인식, 『한국학논집』 33,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06, 335-392쪽
- _____, 「도시 속의 민속문화 전승양상과 도시민속학의 새 지평」, 『실천민속학연구』 9, 실천민속학회, 2007, 5-50쪽.
- _____, 「민속학 연구대상으로서 민속과 민중의 실천적 인식」, 『실천민속학연구』 31, 실천민속학회, 2018, 9-70쪽.
- 정민지, 「위기의 서사 탐바구니에서 민속생태 다시 쓰기: 강원도 인제군 달뜨는 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209,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24, 55-80쪽.
- 정형호, 「개인생애사를 통한 도시민속학의 접근 방법의 모색: 용산 지역 6인의 생애사를 통한 접근」, 『실천민속학연구』 9, 실천민속학회, 2007, 51-84쪽.
- 조문영, 「청년자본의 유통과 밀레니얼 세대-하기: 젊은 소셜벤처 창업자들에 관한 문화기술지」, 『한국문화인류학』 51(3), 한국문화인류학회, 2018, 309-364쪽.
- 조문영 · 이승철, 「사회」의 위기와 「사회적인 것」의 범람: 한국과 중국의 「사회건설」 프로젝트에 관한 소고」, 『경제와사회』 113, 비판사회학회, 2017, 100-146쪽.
- _____, 「한국 「사회혁신」의 지형도」, 『경제와사회』 120, 비판사회학회, 2018, 268-312쪽.
- 주강현, 「한국민속학의 범주와 영역의 혼재: 한국민속학의 비속화와 아마추어리즘」, 『역사민속학』 15, 한국역사민속학회, 2002, 307-337쪽.
- 천정환, 「식민지 시기의 청년과 문학·대중문화」, 『오늘의 문예비평』 55, 2004, 36-37쪽.
- 최성민, 「“청년” 개념과 청년 담론 서사의 변화 양상」, 『현대문학이론연구』 50, 현대문학이론학회, 2012, 239-241쪽.
- 최원오, 「도시민속지 만들기와 도시민속학의 가능성: 국립민속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의 도시민속지 검토를 통해서」, 『민속학연구』 25, 국립민속박물관, 2009, 5-30쪽.
- 한양명, 「한국 민속놀이 연구의 시각과 전망」, 『비교민속학』 38, 비교민속학회,

2009, 13-33쪽.

_____, 「놀이민속의 탈맥락화와 재맥락화: 영산줄다리기의 경우」, 『한국민속학』 49, 한국민속학회, 2009, 85-119쪽.

허용호, 「19세기 무속에 대한 '반성적 연행'의 성행과 그 민중문화적 의미」, 『한국무속학』 19, 한국무속학회, 2009, 131-164쪽.

_____, 「그들이 만들려했던 공동체: 1980년대 대학 대동제(大同祭) 연구 서설」, 『일본학』 29,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09, 123-148쪽.

홍태한, 「무가의 전승 주체」, 『한국민속학』 35, 한국민속학회, 2002, 253-375쪽.

LIVING WITH CRISIS

KANG SEOKMIN (KANG, SEOK MIN)

Youth are not simply used to refer to a specific age group. Rather, the existence of youth in Korean society is unique in that they are historical subjects that have emerged or been proven in a pair with crises. The problem, however, is that the discursively composed layers and characteristics of the crisis at the time are not only somewhat negated or eliminated in the name of the youth, but rather block or visualize their minority capabilities themselves by strengthening biopolitical discipline and control. However, when such a problem is identified in connection with the creation, not the ubiquity of power, but the ubiquity of the crisis becomes clearer, and the paradox that the youth in it coexists with such a crisis can be obtained? This article deals with the problem of affective politics surrounding the youth's situation, that is, 'youth in crisis', or 'crisis and youth', which is conditioned in connection with crisis discourse, by experimenting with community culture that has been activated in various regions and imagining alternatives or partially coping with the performance of local things required by the system.

Key Words : folk, crisis, youth, local, regeneration